

2021 멕시코 봄 선교 편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멕시코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의 안식년 감사



부모님들의 건강 까닭으로 입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섬겨주심으로 장 선교사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중에서도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멕시코 선교를 보고의 기회를 가짐도
감사합니다. 또한 제5기 사역을 위하여
해외선교위원회가 배려해 주셔서

재파송의 과정도 잘 마쳤습니다. 출국을 계획할 때에 서울신학대학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심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멕시코 교사 강습회를 구성하게 됨도 큰 기쁨입니다. 선교사
안식관(박천일선교사님)에서의 휴식과 많은 선교사님들과의 교제에 참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진행되는 일들

제가 없는 동안에 팬데믹속에서 임원들과
함께 저희 자녀들이 월례회를
섬겨왔습니다. 또한

큰나무 교회(김재성 목사님)의 후원으로
지교회 ‘하나님은 좋으시다’(사무엘
목사님)의 천장과 앞뒤 벽을 작업하였고,
귀국하면 2층을 마무리하여 헌당을 하고자
합니다. 기적의 물고기 잡는 교회(미주
교회) 도 조금씩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아주 많은 목회자들이 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멕시코는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이 가난해졌다고 신문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이들이
배고픔에 이르러서 이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미주의 몇몇 교회들의 사랑으로 정기적인 구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리장로교회, 한길장로교회, GMC, 워싱턴 선한 목자교회 에서 이를 위하여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받을 때라 믿습니다.

도저히 움직일수 없는 시기에 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근속 3년 반을 지낸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며, 온 세상이 물에 잠긴 방주속에서 1년을 보낸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포로기의 시기와 같은 이때, 지하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린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기도의 제목 (일반 그리고 새로 부딪히는 도전들)

1. 판데믹속에서 모든 교회가 강건하고, 교회학교 선생님과 청년학생과 어린이들의 신앙이 잘 보존되고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2. 75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새로운 도전의 판데믹 상황이지만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필요한 도구들이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1. 굶주리는 노인들을 위한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코로나로 더 발생한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구제의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복음과 문명에서 소외된 인디헤나(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4. 차기 멕시코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래 인터넷 2사진 참조)



새 기도를 위한 멕시코 자료들



0. 멕시코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는

(2021년 3월4일) 국립 보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망은 188, 866명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하캘리포르니아는 황색경보(중간) 입니다.

1. 멕시코 노인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 곳에 거합니다. 노인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많은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지만, 평균 수명은 76.1세이며, 남성은 73.3세, 여성은 79세입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2017년 현재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인구의 7.1%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2. 멕시코 전체 인구는 (2021) 1억2천823백만명인데, 이중 **가난한 사람들이** 52.4 백만명이고, 극심한 가난한 이들은 9.3백만명이라고 합니다. (자료, 12. 27, 2019) 심지어 7천만명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기사도 있고, 2018년 이후 수입의 극감으로 심각한 가난한 사람들이 6.1백만에서 10.7백만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3. 인디헤나 (원주민),

깊은 산속에, 그리고 거리의 구걸하는 곳에서 그들을 만날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가 옆구리에 긴 천으로 아기를 감싸듯이 어린이를 업고, 거리와 국경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들은 어디 사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알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점차 자신들의 말을 잃어가고 있고, 외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산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속에 익숙한 것을 이용하려는 마약의 재배자들의 접촉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리화나와 코카나무 재배에 연관을 갖게 되기에 이들을 위한 선교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멕시코에는 68개의 토착군(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이 있으며, 11 개의 언어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364 개의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국립 통계 지리 연구소 (INEGI)에 따르면 인구의 21.5 % 인 2,570 만명이 토착민이라고 자칭하고, 1,200 만 명은 그들 형식의 집에 살고, 740만명(6.5%)이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사회 개발 정책 평가위원회 (CONEVAL)에 따르면

원주민 840 만 명(69.5 %)이 빈곤 상황에 있고, 340 만 명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으며, 토착어 사용자의 43 %가 초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으며, 55.2 %는 저 숙련 수작업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4. 현재 멕시코 선교부의 선교사님들이 평균 나이가 57세 입니다. 멕시코와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새로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좌)내륙의 미션(기도처)



기적의 물고기 잡는 교회의 어린이 사역 (우)

2021년 3월 6일 한국 안식년중

장차진 조인숙 (예나, 한나, 성의) 선교사